

# 고흥군 고병원성 조류 AI 차단방역 총력 대응

상황실 운영 방역실태 정기 점검  
농장 출입 통제 등 현장 관리 강화

고흥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가금 농가 피해 예방과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차단방역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특별방역 기간 동안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금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닭·오리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출입 통제 여부 ▲차량·사람 소독 이행 여부 ▲전용 방역복 착용 ▲축사 내외부 소독 관리 ▲가금 입

출하 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전담 공무원 활동내역과 함께 보고서로 정리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해 예찰 문진표에 따라 주 2회 전화 예찰하고 있으며, 농가별 방역 실태를 주 1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장 지도·점검 내용과 보안 조치 사항 등을 활동 보고서에 기록해 방역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고흥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철새 도래지 및 인근 농가 예찰 강화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해 행동 요령과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kwangju.co.kr



고흥군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 1인당 3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보성군 내달 2일부터 본격 지급

다. 이를 통해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을 지원하는 ‘빛 없는 민생 복지’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금은 보성사랑상품권(정책본)으로 지급되며,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2251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약 110억원 규모의 자금

이 지역 내에 유입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년 12월 16일)과 신청일 모두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으로,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집

중 신청·지급 기간으로 운영된다.

집중 신청·지급 기간인 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마을 방문 현장 접수·지급,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지급 방식으로 진행돼, 고령자와 거동 불편 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마을 방문 지급 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과 거동 불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급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해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zb@kwangju.co.kr

## 순천 배한의원, 월등면서 한방 의료 봉사



순천 배한의원이 순천시 월등면 명산경로당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다.

순천 배한의원이 지난 25일 순천시 월등면 명산경로당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의료진을 포함한 덕영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 20명과 지역 주민 60명이 참여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한방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정보도 제공하며,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배진석 배한의원장은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었으며, 한방의료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방 의료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심재성 월등면장은 “의료진의 봉사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산단 중흥·삼동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

27필지 1만 8386.6㎡ 공급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추진한다.

공고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이며, 분양 대상 용지는 중흥2지구는 생산지원시설용지 6필지와 후생지원시설용지 19필지로 총 25필지(1만 6199.3㎡)와 삼동지구 후생지원시설용지 2필지(2187.3㎡)다.

입주대상 업종과 용도에 따라 용지면적은 최소 274㎡에서 최대 3830㎡이다.

입찰희망자는 입찰 참가 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찰 전(사전) 입주심사 접수하여 통과해야 하며, 3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용지별 입주 가능 업종과 용도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

동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다.

분양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 입찰소식란과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72)로 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며 “분양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뒤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곡성군, 상반기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지원단 운영 시작

안전교육·시연회 후 본격 활동

곡성군이 파쇄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농, 취약농가 및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지난 26일부터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파쇄지원단 운영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파쇄지원단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 시연회는 고달면 뇌죽리 일원에서 고춧대, 깻대를 대상으로 파쇄 작업을 진행하며, 파쇄 장비 운영 방법과 작업 절차 등을 직접 시연하여 농가의 이해를 도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현장에서 파쇄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과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1월20일까지 사전 신청한 87개소를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파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부터 3월 중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곡성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서연남 소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으며, 추가 신청 기간에도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곡성=박순구 기자 psk8210@kwangju.co.kr

## 광양중앙도서관 청년 대상 전자책 구독서비스 밀리의 서재 참여자 모집

광양중앙도서관이 청년층의 독서 습관 형성과 온라인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전자책 구독 서비스 ‘밀리의 서재’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청년(미소청년)’ 사업의 일환으로,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 맞춰 청년 세대가 일상 속에서 독서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밀리의 서재’는 베스트셀러와 신간 도서를 비롯해 자기계발서, 소설, 인문·교양서 등 약 22만 종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전자책 구독 서비스로, 선정된 참여자는 모바일과 PC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광양중앙도서관은 앞서 2025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광양시 청년 200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참여자들이 약 3400권의 전자책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운영 기간을 2월부터 10월까지로 확대하고, 총 3회에 걸쳐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이 가운데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을 우선 지원하며 분기별 선착순 100명에게 3개월간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용 기간은 ▲1분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분기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분기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의 ‘독서·문화마당’ 내 수강신청 메뉴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중앙도서관(061-797-38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온라인 독서가 일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지역 청년들이 보다 폭넓은 독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산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

구례군, 전남도 공모 선정

도비 지원 받아 버스 운행

구례군이 전남도에서 주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 버스 운행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례군은 올해 도비 1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어온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길고 접근성이 낮아 그동안 구례군에서는 버스 1대를 임차하여 연 8개월 동안만 관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례군은 연중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돼,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의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여건 개선에 따라 청년층과 인근 지역 구직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통근버스 운영 외에도 산단 내 환경개선,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사업을 검토 중이다. /구례=이진백 기자 lit@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